저물가시대?… 서민은 더 힘들다

가공식품·집세·전기료 등 생활물가는 더 올라

정부 저물가 빌미 공공요금 인상 추진 '2중고'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이상 1%대 안팎을 기록하는 등 저물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식품류와 공공요금 등은 되레 올라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와 괴리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경우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위축하는 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광주는 1.4%, 전남은 0.7%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달에 비해서는 각각 0%P와 0.1%P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5월 이후 28개월 연속 한국은행의 중기물가목표(2.5~3.5%)에 못 미치는 1%대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온 데는 농산물과 공업제품 가격이 내린 게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가량 하락했으며 공업제품 가격은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0.5% 정도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30% 가까이 하락했고 시금치도 20% 이상 크게 내렸다. 공업제품 가운데 휘발유(-1.3%), 경유(-1.4%), 등유(-1.0%) 등도 전월에 비해 하락했다.

하지만, 저물가 속에서도 소비자가 실제 접하는 가공식품이나 집세와 전기료 등 서민들의 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들은 크게 올라,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다.

초콜릿과 초코파이 등 과자류가 15% 이상 대거 뛰었으며 매월 지급하는 전기(2.7%)·도시가스(4.7%) 등 공공요금도 올랐다. 여기에 전세(1.3%)·월세(0.7%) 등 집값도 상승해 서민 부담이 커졌다.

광주 남구에 사는 오모씨(37)는 "전셋값이 뛰고, 택시비와 전기요금도 오른 상황에서 1%대 저물가 기조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서 "체감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저물가 기조 속 체감물가와의 괴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저물가를 빌미로 담뱃값을 비롯해 대중교통·상하수도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민들 주머니만 축날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물가 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통체계를 바로잡는 등 실질물가를 낮추기 위한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양님 광주YWCA소비자상담실 회장은 "정부는 가공식품 등 실질적인 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2~3배나 더 뛰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식품업계의 독과점 경쟁구조 등 유통과정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따지는 등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불필요한 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52.97 (-11.46) ▼ 금리 2.12% (-0.02)

▼ 코스닥 552.47 (-6.23) ▲ 환율 1072.60원(+4.10)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경쟁력 있는 은행 키울것"

임용택 전북은행장 취임

임용택(61) 전북은행장이 3일 취임했다.

임용택 신임 행장은 지난달 14일 JB 금융지주 자회사 CEO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은행장 후보에 선정, 지난달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이날 전북은행 제11대 은행장으로 취임했다.

전북은행장을 겸하고 있던 김한 JB 금융지주 회장은 광주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무안 출신인 임 행장은 성균관대를 나와 대신증권, 토러스투자전문㈜, 메리츠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를 거쳐 전북은행 사외이사, 우리캐피탈 사장 등을 역임했다.

임 행장은 취임식에서 "전북은행은 내실 위주의 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강화해 더욱 경쟁력 있는 은행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산건전성 제고, 위험관리 강화, 계열회사 간 업무제휴 및 마케팅을 통한 카드사업 활성화,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사업모델 구축, 사회공헌활동 전개 등을 제시했다.

한편, 임 행장은 목포·무안·신안 등지에서 8·10·11·12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민주한국당 원내총무, 신한민주당 부총재를 역임한 임종기 전 의원의 아들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아이폰6 개통 잇단 취소

판매점들 정부 징계방침에

지난 1일과 2일 사이 벌어졌던 '아이폰6 대란'〈광주일보 3일자 8면〉을 놓고, 정부의 징계 지침이 나오자 판매점들이 자진해서 개통 취소에 나서고 있다.

3일 스마트폰 커뮤니티에는 이날 오전부터 연이어 "개통취소 전화가 왔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주말 새벽에 아이폰6를 구매했으나 주말 개통 숫자가 밀려 월요일에 개통하기로 예약한 소비자들은 모두 개통 취소 처리된다는 게 이들 개통예약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광주의 한 판매점도 이날 예약 고객들에게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며 취소를 예고하는 문자메시지를 전달했다.

휴대전화 판매점이 개통취소에 나선 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3일 새로 단장한 롯데백화점 광주점 문화센터에서 수강생들이 강사의 지도에 따라 노래를 부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역 문화예술 지원 나서

11층 문화센터·갤러리 새단장

맘&키즈홀·음악교실 등 갖춰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문화센터와 갤러리 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지역의 문화예술 지원활동에 나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광주점 11층에 문화센터와 갤러리를 각각 마련, 3일 문화센터에 이어 오는 7일에는 갤러리도 개장한다.

문화센터·갤러리 공간은 다목적홀, 맘&키즈홀, 음악교실, 미술교실 등 강좌별 특성에 맞게 전동 스크린과 빔프로젝터, 앰프, 믹서 등 최신 영상과 음향 설비를 갖춰 수강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혈압과 체지방 분석을 할 수 있는 헬스존, 악기 레슨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일대일 레슨실이 있는 음악실도 갖췄다. 영유아를 위한 놀이방과 수유실, 요가·필라테스·발레 등 수강생들을 위한 탈의실도 있다.

이번 문화센터·갤러리 개장을 기념해 이 달 한 달간 다양한 이벤트와 명사초청 강좌도 마련됐다. 인기 트로트 가수 홍진영의 축하 콘서트, 모래로 다양한 그림을 그리는 샌드아트 체험전과 인형극, 대형 비눗방울 쇼, 마술쇼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시인 안도현과 가수 김원중이 진행하는 '시와 음악의 만남 뮤직 콘서트', 구천서 한반도미래재단 이사장의 '리커창을 말하다', 의학박사 남재현의 '뱃살 빼는 다이어트' 등 명사초청 강좌도 이어진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통계청, 가구주택조사

호남지방통계청(청장 백만기)는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국 가구와 거처(건물)을 대상으로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인구·가구·주택 및 농림어가에 대한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은 전국의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빈집 포함)이며, 조사 항목은 가구명부 9개 항목과 보조항목 3개이며 주소·거처종류·농림어가여부 등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주택담보대출 받아 빚갚고 생활비 쓴다

주택구입 목적은 절반도 안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8월 9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중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은 48.4%에 그쳤다. 주택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대출이 절반을 넘은 것이다.

2008년에는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63.2%에 달했으나 2011년 58.4%를 거쳐 2012년 46.6%로 떨어지고서는 2013년 47.1% 등 3년 연속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대신 대출금 상환(18.8%), 생계자금(12.4%),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8.2%), 사업자금(1.6%), 학자금·자동차 구입 등 기타(10.3%)가 나머지 51.3%를 차지했다.

최근 7년간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비중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용도는 대출금상환과 생계자금, 주택임대차로 빠듯한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빚내서 빚을 갚는 대출금 상환 용도는 2007년 5.6%에서 2011년 9.2%를 거쳐 2012년 22.0% 등으로 늘었다.

전셋값 급등 영향을 반영하는 주택임대차 용도는 2007년 1.1%에서 2008년 0.8%를 거쳐 2009년 1.5%, 2011년 3.7%, 2013년 5.8%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생활비가 부족해 빌리는 생계자금 용도는 2007년 7.5%에서 2008년 10.9%로 증가했다가 2011년 4.9%까지 줄었으나 2013년(10.8%)부터 급증세다.

한은 관계자는 "50대 이상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소득증가율은 50대 미만 차주들과 달리 2010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밑돌고 있다"며 "향후 이들의 채무 상환능력 저하로 가계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